

노후상수관망 현대화 본격 추진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모 선정 308억 사업비 확보

임실군이 노후상수관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여 안정적으로 군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임실군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갖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환경부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08억의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축적된 수행경험, 전문성, 효율성과 환경부와 유연한 소통창구의 역할 고려 등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킬 전망이다.

그동안 임실군 상수도는 지난 1990년 설치돼 전체의 17.7%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로 유수율이 54.4%에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블록 및 관망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군은 3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상수관망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를 통해 노후상수관로 32km를 정비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누수저감은 물론,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녹물발생, 단수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들의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상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업생산 400억 확보 상반기 조기집행

남원시가 안정성농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의 개선과 보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봄 가뭄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관정시설과 양수장비 관리실태 사전점검, 정비, 양반관정 개발 등 다양한 용수확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본예산 360억원에 저수지 안전진단, 용배수로 현대화, 집중호우 복구비 등 재해관련 예산 40억원 등 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상반기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60% 이상을 집행하고, 용수공급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영농이전에 100% 정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노홍래 순창부군수,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현장점검 나서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순창군 노홍래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공공시설물을 점검하고 국민안전 확보에 나섰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과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에서 합동점검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점검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안전문화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노홍래 부군수를 주축으로 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총 348개에 대한 시설물 점검에 들어간다. 노 부군수가 직접 나선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특별점검으로 진행됐다. 전북도 관계자와



순창군 노홍래 부군수가 현장을 찾아 공공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건축, 소방, 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10여명이 현장에 함께 해 합동점검에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노홍래 부군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현재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348개소 중 317개소에 대해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 19일까지 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아동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4월부터 흡연폐해 및 음주폐해예방, 올바른 식습관, 비만예방 신체활동교육 등을 담은 '건강한 우리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흡연아동·청소년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금연클리닉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51곳에 '건강한 우리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초(10)·중(3)·고(3)·특수학교(1) 등 총 17개교 1천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흡연폐해예방, 음주폐해예방, 영양·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건강취약분야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등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2019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 사업 공모 선정됐다.

임실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선정

임실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다. 2019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문사서 인력을 작은도서관에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작은도서관 4곳에 전문사서를 순회 파견한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앞장선다. 전문사서를 순회 파견되는 곳은 △안전(119 안전체험관), △충

경(35사단내), △무지개빛(청소년수련원내) △필봉 작은도서관 등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의 문화서비스 제공과 작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문사서 지원을 통해 책과 사람, 문화가 함께 있는 활기찬 작은도서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임실군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7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월 1회 정례회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연합홍보 등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서는 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녹색어머니회 정기총회 열어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2일 경찰서 4층 민원실에서 관내 8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앞서 연합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고 녹색어머니회 운영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녹색어머니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간담회 실시

남원시는 지난 2일 고용플러스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19개소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2018년도 현장점검 및 합동점검 결과 공유를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논의했다.

남원시는 지역사회 수요와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올해 13개 사업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도내 유일할 신규 사업으로 보완 대체 의사기할 활용 중재서비스를 추가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주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소통의 기회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도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조사업 선정

남원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추진하는 2019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마을사업) 공모에 송동면 대동마을이 선정됐다.

국·도비 8억여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 수립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생활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 주생면 제천·서만지구, 2016년 주천면 용치지구가 각각 선정되면서 노후 불량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가 실현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